

# 메리 아스텔의 초기 여성주의

이우창\*

“잉글랜드국교회의 딸”과 지식의 정치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아스텔의 주요 저작을 잉글랜드국교회의 풍속개혁 운동의 맥락에서 읽고 그의 “초기 여성주의”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스텔 연구사를 개괄하는 1장을 지나, 2장은 왕정복고 이후 국교회 여성교회론의 논리를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여성의 지식과 교육이라는 주제가 중요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3장은 아스텔의 초기 주저인 『진지한 제안』(1694)과 『두 번째 제안』(1697)이 국교회 여성교회론으로부터 어떻게 ‘여성주의적’ 논변을 구축하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여성의 지식이라는 주제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추적한다. 4장은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을 비롯한 1690년대 중후반의 관용론 저술의 전략과 아스텔의 입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응답하여 아스텔이 후기 주저 『기독교론』(1705)에서 여성을 위한 지식의 정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읽어 본다. 결론에서는 아스텔과 초기 여성주의 연구의 의의를 돌아본다.

**주제어** 메리 아스텔, 여성 철학자, 초기 여성주의, 잉글랜드국교회, 존 로크, 관용

## 1. 서론

메리 아스텔(Mary Astell, 1666~1731)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이전의 여성주의자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여성 문인이다. 여성의 불평등한 처지

---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박사

에 이의를 제기하는 저자는 여럿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남성)이 자유롭게 태어난다면, 어째서 모든 여성은 노예로 태어나는가?”라는 『결혼에 관한 성찰』(*Some Reflections upon Marriage*, 초판 1700)의 말이 보여 주듯 아스텔만큼 신랄하고 뚜렷한 목소리를 낸 인물은 찾기 힘들다.<sup>1</sup> 존 로크(John Locke)와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존 킬럿슨(John Tillotson)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잉글랜드국교회의 딸이 말하는 기독교론』(*The Christian Religion, as Professe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초판 1705, 이하 『기독교론』), 샤프츠베리 백작(Anthony Ashley-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바틀레미 장터』(*Bart'lemy Fair*, 1709)에서처럼 그는 필요하다면 당대의 영향력 있는 휘그파 문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sup>2</sup> 이처럼 투쟁적인 글쓰기가 곧 비사교적인 성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1693년부터 한 해 동안 저명한 철학자이자 성직자인 존 노리스(John Norris)와 철학적 서신을 교류했다.<sup>3</sup> 아스텔은 여성의 처지에 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성 문인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반론을 출판했던 레이디 메리 처들리(Lady Mary Chudleigh)는 아스텔을 위한 헌시 「알미스트레아에게」(*To Almystrea*)를 썼다.<sup>4</sup> 레이디 메리

1 “If all Men are born free, how is it that all Women are born slaves?” Mary Astell (1996), *Reflections upon Marriage*, in *Astell: Political Writings* (ed. Patricia Springbo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원문 강조).

2 Mary Astell (2013a), *The Christian Religion, as Professe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ed. by Jacqueline Broad), Toronto: Center for Reformation and Renaissance Studies [1717년 2판 저본]; [Mary Astell] (1709), *Bart'lemy Fair: Or, an Enquiry after Wit; in Which Due Respect Is Bad to a Letter Concerning Enthusiasm, to My Lord \*\*\**, London[“Mr. Wotton”이라는 가명으로 출간].

3 두 사람이 교환한 서신은 1695년 『신의 사랑에 관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아스텔의 철학적 영민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상세한 서문이 붙은 현대 비평판은 Mary Astell and John Norris, *Letters Concerning the Love of God* (ed. by E. Derek Taylor and Melvyn New, Aldershot: Ashgate, 2005).

4 Mary Chudleigh (1993), *The Poems and Prose of Mary, Lady Chudleigh* (ed. by Margaret J. M. Ez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6-67[원문은 1703년 첫 출간].

워틀리 몬터규(Lady Mary Wortley Montagu)의 『터키 대사관 편지』(*The Turkish Embassy Letters*)를 위해 쓴 서언은 그가 논쟁의 장을 떠난 이후에도 다음 세대의 여성 문인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케 한다.<sup>5</sup>

20세기 중반까지 아스텔을 다룬 글은 꾸준히 등장했으나 독립적인 연구분야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sup>6</sup>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주의적인 역사, 나아가 여성주의(자)의 역사를 구축하려는 열망을 품은 일련의 문학·역사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sup>7</sup> 특히 17세기에서 여성주의의 전통을 찾아내고자 했던 연구자들의 시선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스텔을 향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의 아스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 (주로 데카르트철학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아스텔의 저작에서 여성주의적 의제를 찾아내어 강조하는 연구다.<sup>8</sup> 둘째, 아스텔의 논변을 “로

---

“Almystrea”는 메리 아스텔의 애너그램이다.

- 5 Mary Astell (2013b), “Preface, by a Lady” in Lady Mary Wortley Montagu, *The Turkish Embassy Letters* (ed. by Teresa Heffernan and Daniel O’Quinn), London: Broadview, pp. 221–223. 아스텔의 서언은 1724년에 집필되었으며 1763년 『터키 대사관 편지』가 처음으로 출간될 때 포함되었다. 아스텔과 몬터규의 우정에 관해서는 Ruth Perry (1986), *The Celebrated Mary Astell: An Early English Femin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69–277; Isobel Grundy (1999), *Lady Mary Wortley Montagu*,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7–218 등을 참조. 다만 아스텔이 18세기 잉글랜드의 여성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6 George Ballard (1985), *Memoirs of Several Ladies of Great Britain, Who Have Been Celebrated for Their Writings or Skill in the Learned Languages, Arts and Sciences*,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 382–392 [원저 출간은 1752년]; Florence M. Smith (1916), *Mary Astel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7 Natalie Zemon Davis (1976), “‘Women’s History’ in Transition: The European Case,” *Feminist Studies* 3.3/4, Feminist Studies, Inc., pp. 83–103; Joan Kelly (1984), *Women, History and Theory: The Essays of Joan Kel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s. 3, 4; Joan Scott (1988),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intro. 및 chs. 1–2 등을 참조.
- 8 Hilda L. Smith (1982), *Reason’s Disciples: Seventeenth-Century English Feminist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117–39; Alice Sowaal and Penny A. Weiss, eds. (2016), *Feminist Interpretations of Mary Astell*,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크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로크를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대변인으로 해석하는 C. B. 맥퍼슨(C. B. Macpherson)의 주장을 참조하여, 1980년대 캐롤 페이트먼(Carole Pateman)과 같은 여성주의 정치철학자들은 로크의 ‘자유주의’를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변을 제시했다.<sup>9</sup> 루스 페리(Ruth Perry) 및 퍼트리샤 스프링보그(Patricia Springborg) 등 2000년대까지의 아스텔 해석을 주도한 연구자들은 이를 계승하여 아스텔을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항하는 여성주의자로 읽고자 했다.<sup>10</sup>

2007년 출간된 연구논문집 『메리 아스텔: 이성, 젠더, 신앙』을 전후로 바람의 방향은 다시금 바뀌었다.<sup>11</sup> “케임브리지학과”의 언어맥락주의 지성

---

Press에 실린 글들도 참조. 아스텔에게서 여성주의적 의제를 읽어내려 한 한국 학술장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배혜정(2008), 「여성교육을 위한 메리 아스텔(1666-1731)의 제안」,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pp. 265-294; 배혜정(2015), 「결혼에 대한 메리 아스텔(1666-1731)의 비판적 고찰」,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pp. 431-468.

- 9 C. B. Macpherson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Clarendon Press; Carole Pateman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role Pateman (1989),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10 Ruth Perry (1990), “Mary Astell and the Feminist Critique of Possessive Individualism,” *Eighteenth-Century Studies* 23.4,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444-457; Patricia Springborg (1995), “Mary Astell (1666-1731), Critic of Lock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 621-633; Patricia Springborg (2005), *Mary Astell: Theorist of Freedom from Dom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한국 학계의 연구로는 Ju Lie Choi (2010), 「Born Free? Mary Astell’s *Reflections upon Marriage* and Defoe’s *Roxana*」, 『근대 영미소설』 17.2, 근대 영미소설 학회, pp. 5-32; Ju Lie Choi (2011), 「Women, Religion, and Enlightenment: Mary Astell’s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영미문학페미니즘』 19.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pp. 5-34; Ju Lie Choi (2014), 「Mary Astell’s *The Christian Religion*: Life, Liberty and Happiness as Professe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영미문학페미니즘』 22.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pp. 5-41.
- 11 William Kolbrener and Michal Michelson, eds. (2007),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Aldershot: Ashgate. 케임브리지학과 언어맥락주의에 관해서는 리처드 왓모어 (2020), 『지성사란 무엇인가?: 역사가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 이우창 역, 파주: 오월의

사 연구모델이 확산되고, 또한 과거 여성 문인들의 저술과 네트워크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축적되면서 아스텔 연구자들 또한 아스텔이 속해 있던 과거의 맥락을 한층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sup>12</sup> 해당 편저에서 특히 중요한 작업으로는 마크 골디(Mark Goldie)와 해나 스미스(Hannah Smith)의 글을 꼽을 수 있다.<sup>13</sup> 골디는 스프링보그의 주장을 명예혁명기 정치 언어의 맥락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아스텔의 로크 비판을 여성주의자의 자유주의 정치사상 비판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sup>14</sup> 골디의 지도학생이었던 스미스는 『숙녀들의 참되고 가장 중요한 이익의 진전을 위해 그분들께 드리는 진지한 제안』(*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True and Greatest Interest*, 초판 1694, 이하 『진지한 제안』)을 17세기 후반 잉글랜드국교회(이하 “국교회”)의 풍속개혁(Reformation of Manners) 운동과 연결하여 아스텔의 사상을 당대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해석의 기본형을 제시했다. 골디와 스미스의 논문 이후 아스텔 연구는 1980년대 이래 풍부하게 축적되어 온 근대 초 잉글랜드 교회사 연구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sup>15</sup>

---

본 참조.

- 12 Kolbrener and Michelson (2007), ch. 1 참조.
- 13 Mark Goldie (2007), “Mary Astell and John Locke,”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ed. by William Kolbrener and Michal Michelson), Ashgate, pp. 65–85; Hannah Smith (2007), “Mary Astell,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1694), and the Anglican Reformation of Manners in Late-Seventeenth-Century England,”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ed. by William Kolbrener and Michal Michelson), Ashgate, pp. 31–47.
- 14 아스텔과 로크의 관계가 단순한 비판 이상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연구로는 Jacqueline Broad (2014), “Mary Astell on Marriage and Lockean Slave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35.4, Imprint Academic Ltd., pp. 718–738 참조.
- 15 Sarah Apetrei (2010), *Women, Feminism and Religion in Early Enlightenment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t. 1; Jacqueline Broad (2015), *The Philosophy of Mary Astell: An Early Modern Theory of Virt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hn William Klein (2019), “Susanna Hopton and Mary Astell: Two Women Spiritual Writers Among the English Nonjurors,” *Anglican and Episcopal History* 88.2, Historical Society

16세기 수장령(The Acts of Supremacy) 반포 이래 다양한 기독교 종파 사이의 긴장은 잉글랜드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었으며, 『기독교론』에서 스스로를 “잉글랜드교회의 딸”이라 칭한 예에서 잘 드러나듯 아스텔 본인에게도 국교도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아스텔과 당대 기독교 도덕·정치 논쟁의 맥락을 분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분명 정당하다. 하지만 그러한 맥락의 확인이 곧 해석의 종착역은 아니다. 폴디 및 스미스의 연구 이래, 아스텔의 저술이 많은 지점에서 당대 국교회의 여성교화론과 공명하고 있음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양자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아스텔은 국교회 여성담론의 언어를 똑같이 반복할 뿐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후자라면, 그러한 차이가 겨냥하는 전략적인 목표란 무엇인가? 나아가 이런 전략적인 목표로부터 과거 담론장의 구조와 지형, 쟁점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상기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아스텔의 주요 저작을 국교회의 여성교화론, 특히 여성의 지식과 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맥락에서 읽고, 그로부터 그의 “초기 여성주의”(early feminism) 전략을 분석하면서 상기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sup>16</sup> 2장은 우선 왕정복고 이후 국교회의 여성교화론을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여성의 지식이라는 주제에 중요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3장은 아스텔의 초기 주저인 『진지한 제안』(1694) 및 『두 번째 제안』(1697)이 국교회 여성교화론으로부터 어떻게 ‘여성주의적’ 논변

---

of the Episcopal Church, pp. 156-175 등을 참조. 장기 18세기 잉글랜드국교회사 연구의 성장에 관해서는 Jeremy Gregory, ed. (2017), *The Oxford History of Anglicanism, Volume II: Establishment and Empire, 1662-182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1; 이우창(2022), 「영여권 계몽주의 연구의 역사와 “잉글랜드 계몽주의”의 발견」, 『코기토』 9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 227-260 중 240-247 참조.

16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잉글랜드 초기 여성주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우창(2022), 「새뮤얼 리처드슨과 초기 여성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1부 참조.

을 구축하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그것이 여성의 지식이라는 주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적한다. 4절은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1695)을 비롯한 1690년대 중후반의 관용론 저술 일부를 살펴면서 그러한 관용론의 전략과 아스텔의 입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그에 대응하여 아스텔이 후기 주저 『기독교론』에서 여성의 지식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시 서술하는지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아스텔의 사상을 포함한 영국의 초기 여성주의를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을 성찰할 수 있다.

## 2. “왕정복고 교회”와 여성교화론

17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여성주의적 논변이 등장하게 된 지적 배경으로는 흔히 당대 데카르트적 철학 및 인문주의 여성교육론의 유행 등의 요인이 언급된다.<sup>17</sup> 하지만 이는 18세기 여성 담론의 확산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스텔의 여성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설명력만을 가진다. 실제로 17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여성 문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저자들, 예컨대 『인간 의무론』(*The Whole Duty of Man*, 1658) 및 『숙녀의 소명』(*The Ladies Calling in Two Parts*, 1673)의 집필자로 추정되는 리처드 얼스트리(Richard Allestree)나, 『태틀러』(*The Tatler*, 1709)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1711~1714)의 주 기고자인 리처드 스틸(Richard Steele) 및 조셉 애디슨(Joseph Addison)은 모두 기독교 도덕 언어의 틀 내에서 여성의 지식과 도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1660년 왕정복고 이

17 Smith (1982); Sarah Gwyneth Ross (2009), *The Birth of Feminism: Woman as Intellect in Renaissance Italy and Engl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rol Pal (2012), *Republic of Women: Rethinking the Republic of Letters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후 국교회의 전략적 목표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신교의 전파 이래 잉글랜드의 종교인들에게 평신도를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개혁”(reformation)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다.<sup>18</sup> 17세기 중반 내전기에 급진파 신교도들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왕정복고와 함께 간신히 부활한 국교회의 눈에 이는 한층 더 시급한 사안이었다. 국교회 성직자들이 보기에 내전기의 끔찍한 혼란은 부분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그릇된 교리를 구별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종교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에 ‘올바른’ 기독교 교리 및 도덕을 전파하는 일은 “왕정복고 교회”(Restoration Church)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1688-89년 명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윌리엄 3세 치하에서 왕권과 교회, 평신도 엘리트가 함께 손발을 맞춘 “풍속개혁협회”(Society for the Reformation of Manners)의 설립 및 기독교 도덕을 강조하는 각종 저술의 출판으로 이어졌다.<sup>19</sup>

가정과 여성은 국교회의 이러한 작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가톨릭 추기경 자크 다비 뒤 페롱(Jacques Davy du Perron)의 영향을 받아 구교로 개종하고 나아가 거의 모든 자녀를 구교도로 개종시켰던 포클랜드 여작 엘리자베스 캐리(Elizabeth Cary, Viscountess Falkland)의 사례에서처럼, 여성, 특히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18 Eamon Duffy (1998), “The Long Reformation: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the Multitude,” *England’s Long Reformation 1500-1800* (ed. by Nicholas Tyacke), London: UCL Press, pp. 33-70.

19 John Spurr (1991), *The Restoration Church of England, 1646-168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hs. 6-7; John Spurr (1993), “The Church, the Societies and the Moral Revolution of 1688,” *The Church of England, c.1689-c.1833: From Toleration to Tractarianism* (ed. by John Walsh, Colin Haydon, and Stephen Tayl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7-142; Tony Claydon (1996), *William III and the Godl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garet J. M. Ezell (2017), *The Oxford English Literary History Vol. 5: 1645-1714, The Later Seven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3-445.

있는 위치에 있었다.<sup>20</sup> 이를 인지한 국교회의 풍속개혁론자들은 남성 신도들만이 아닌 여성 신도들의 영적인 교화에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8세기 여성 도덕 언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저작인 얼스트리의 『숙녀의 소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다.<sup>21</sup> 여성의 신분을 “미혼 여성”(virgins), “부인”(wives), “과부”(widows)의 세 범주로 구별하고 각 범주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일견 16세기 잉글랜드에서 유통된 여성교육서, 예컨대 스페인 출신 인문주의자 후안 루이스 비베스(Juan Luis Vives)의 『기독교인 여성의 교육에 관하여』를 따르는 듯 보인다.<sup>22</sup> 그러나 후자가 상황별로 여성이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제시하는 보다 실용적인 안내서라면, 먼저 “정숙”(modesty), “온화”(meekness), “연민”(compassion), “경건”(piety)이라는 4가지 여성적 미덕을 상세히 설명하는 전자는 기독교 도덕지침서로서의 성격을 한층 뚜렷이 드러낸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숙녀의 소명』의 서언(preface)이다. 저자는 여성의 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은 시민들의 유소년기 교육을 담당하며 그들이 속한 가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이러한 임무에서 필요한 능력은 “지성”(understanding)으로, 여성 또한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남성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지성을 갖출 수 있다.<sup>23</sup> 셋째,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 국한한다면,

20 Jean-Louis Quantin (2009), *The Church of England and Christian Antiquity: The Construction of a Confessional Identity in the 17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5-221.

21 Richard Allestree (1700), *The Ladies Calling in Two Parts*, Oxford.

22 Juan Luis Vives (1585), *A Very Fruitfull and Pleasant Booke, Called the Instruction of a Christian Woman*, trans. by Richard Hyrde, London [라틴어 초판 출간은 1523]. 비베스와 이 책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Juan Luis Vives (2000), *The Education of a Christian Woman: A Sixteenth-Century Manual* (ed. and trans. by Charles Fantazz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42를 참조.

23 Allestree (1700), p. sig. b2v. 저자는 여기서 영혼에는 성(sex)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혼과 결부된 지성에도 성차가 없다고 설명한다.

기독교를 비롯하고 조소하기 일쑤인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지성과 도덕을 갖고 닦아야 한다. 넷째, 일부 남성이 여성들의 악덕을 지적하며 지적·도덕적 잠재력을 폄하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여성을 이렇게 저급한 상태에 두는 것은 남성들의 잘못이며 여성들은 이에 굴하지 말고 “더욱 고귀한 과업”(nobler things)을 추구해야 한다.<sup>24</sup>

저자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건, 『숙녀의 소명』의 서언은 국교회의 여성교회론에 갖든 ‘여성주의적’ 잠재성을 드러낸다. 국교회 여성교회론은 여성을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녀 및 자기 자신의 신앙과 도덕을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여성의 본성적 무능함을 설파하는 통념대로라면, 여성은 애초에 개선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여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지성을 갖출 수 있다는, 즉 여성 또한 적어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남성과 같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잠재적 역량의 동등함’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을 논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열등한 면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를 여성의 본성이 아닌 여성의 본성을 폄하하는 남성들의 해로운 편견이라는 ‘환경적 요인’의 산물로 해석했다. 이렇게 국교회 여성교회론자들은 **여성**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의 의무수행을 가로막는 원인은 남성들의 악덕에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스텔은 기독교 의무론에 갖든 여성주의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 중 한 명이었다.

24 Allestree (1700), p. sig. b1r.

### 3. 초기 여성주의 전략: 여성교회론을 급진화하기

『진지한 제안』은 아스텔의 핵심주장을 다수 포함하는 팸플릿이다.<sup>25</sup> 아스텔의 논변이 방금 살펴본 국교회 여성교회론과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아스텔은 자신의 목표가 “여러분[숙녀들]의 매력을 높이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sup>26</sup> 이때 “향상”은 외적인 것, 세속적인 것, 참되지 않은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풀려나 내적인 것, 마음과 영혼, 진실과 본질의 세계, 즉 기독교의 신으로 향하는 기독교-플라톤주의적 실천으로 묘사된다. “관습”(custom), “유행”(Fashion), “육체”(our Bodies)의 영역에 묶여 남성들의 평가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은 스스로가 “더욱 고귀한 목표”(Nobler Things)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sup>27</sup> 여성들은 이러한 덫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기수양과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신에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아스텔은 여성이 처한 무능력과 열등한 상태는 여성의 “본성이 아니라 습득된 것”이라 지적한다.<sup>28</sup> 딸에게 교육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부모, 여성을 무지에 빠트리는 잘못된 교육, “연극과 로맨스”(Plays and Romances)와 같은 유해한 유흥거리가 여성을 망가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sup>29</sup> 이처럼 해로운 “관습이라는 폭군”(Tyrant Custom)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교육하여 분별력과 신앙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sup>30</sup> 아스텔은 국교회 여성교회론의 기본적인 논리를 따르되, 교회를 통해 도달하게 될 기독교적인 삶을 남성들의 평가에 지배당하는 삶과 대비시키면서 남성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여성

25 『진지한 제안』 1부 및 2부의 인용은 Mary Astell (2002),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ed. by Patricia Springborg), Peterborough: Broadview Press를 참조.

26 “to improve your Charms and heighten your Value,” Astell (2002), p. 51.

27 Astell (2002), p. 55.

28 “acquired not natural,” Astell (2002), p. 59.

29 Astell (2002), pp. 62-63.

30 Astell (2002), p. 67.

의 과제로 제시한다.

실제로 『진지한 제안』에서 아스텔은 국교회의 도식에 기초하되 몇 가지 과감한 변주를 시도한다. 먼저 저자는 금욕을 실천하는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기구, “수도원”(Monastery) 혹은 “종교적 은둔지”(Religious Retirement)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sup>31</sup> 수녀원의 필요성 자체는 얼스트리나(아스텔의 계획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진) 국교회의 고위 성직자 길버트 버넷(Gilbert Burnet)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아스텔은 이 기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한 소수의 저자 중 한 명이었다.<sup>32</sup> 그는 자신이 구상한 수녀원이 “세속을 벗어나는 이점을 누리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은거의 처소이며,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최고의 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길러내는 기관이자 이를 위한 훈련이라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닌다고 설명한다.<sup>33</sup> “여기에는 그대가 향기로운 낙원에서의 삶을 즐기는 동안 그대를 기만하려는 뱀 따위는 없기에”—뱀이 (사악하고 해로운) 남성을 가리킴은 명확하다—수녀원에서의 “행복한 은거생활”(Happy Retreat)은 이브가 빼앗긴 낙원에서의 삶보다도 안전하다(74).<sup>34</sup> 오로지 여성만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삶의 목표는 “신의 사랑”(Love of GOD)이다.<sup>35</sup>

나아가 아스텔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범위를 확장한다. 얼스트리는 여성에게 가정을 관리하고 올바른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

31 Astell (2002), p. 73.

32 Bridget Hill (1987), “A Refuge from Men: The Idea of a Protestant Nunnery,” *Past and Present* 117,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7-130; Sarah Apetrei (2010), ch. 2; Sarah Apetrei (2011), “‘The Life of Angels’: Celibacy and Asceticism in Anglicanism, 1660-c.1700,”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3.2, Routledge, pp. 247-274.

33 “a double aspect, being not only a Retreat from the World for those who desire that advantage, but likewise, an institution and previous discipline, to fit us to do the greatest good in it,” Astell (2002), p. 73.

34 “Here are no Serpents to deceive you, whilst you entertain your selves in these delicious Gardens,” Astell (2002), p. 74.

35 Astell (2002), p. 75.

식을 요구했다. 그와 달리 아스텔은 과거 여성들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것이 권장되던 시기가 있었다고 인용하면서 “여성을 위한 학술적 교육”(a Learned Education of the Women, 79)의 필요성을 옹호한다.<sup>36</sup> 이때 교육 커리큘럼에는 고전기의 문헌만이 아닌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말브랑슈”(Des Cartes, Malebranch[sic.])가 포함된다.<sup>37</sup>

아스텔은 자신이 “여성이 교회에서 강론해야 한다거나,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권위를 찬탈한다거나” 하는 과격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며, 그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온건한 주장을 할 뿐이라고 앞질러 방어한다.<sup>38</sup> 문제는 아스텔이 제시하는 ‘여성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에 있다. 그는 여성에게 사제와 남편의 인도를 받아 가정을 올바르게 관리하라는 전통적인 요구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를 권한다. 그 핵심은 지식의 추구다. 배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빠져있는 애처로운 무감각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일깨우고 신이 부여한 이성을 활용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조용히 국교회 여성교화론이 제시한 목적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여성 독자의 등을 떠민다.<sup>39</sup> 학식을 쌓고 스스로의 심신을 다스리는 기독교인 철학자의 삶을 통해 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면, 그러한 여성은 여전히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남성 신도들 이상의 존재가

36 Astell (2002), p. 79. 유사한 주장을 인문주의적 여성옹호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Cf. Bathsua Makin (1673), *An Essay to Revive the Antient Education of Gentlewomen, in Religion, Manners, Arts & Tongues. With an Answer to the Objections against this Way of Education*, London.

37 Astell (2002), pp. 82-83.

38 “that Women shou’d teach in the Church, or usurp Authority where it is not allow’d them,” Astell (2002), p. 81.

39 “we shall rescue our selves out of that woful incogitancy we have slipt into, awaken our sleeping Powers and make use of that reason which GOD has given us,” Astell (2002), p. 95.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아스텔은 뒷부분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더 박식한 경우에는 “현명한 여성이 [부족한] 남성을 다스리는” 편이 더 낫다고 짧게 언급한다(106).<sup>40</sup> 아스텔이 제시하는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적·도덕적 능력을 쌓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언젠가는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 남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진지한 제안』은 얼스트리가 제시한 여성교화론을 급진화하는 전략을 통해 남녀의 위계를 전복하는 논리적 가능성까지 끌어내고 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스텔은 『숙녀들께 드리는 진지한 제안 2부, 숙녀들의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제시』(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Part II, Wherein a Method is offer'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Minds, 1697; 이하 『두 번째 제안』)를 출간했다. 책은 서론과 결론 및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의도와 목적을 다시 천명한 뒤, 저자는 1장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에는 지적인 역량이 요구된다는 자신의 인간학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장은 인간의 악덕, 무엇보다도 “편견”(prejudice)에 맞서는 법을 설명한다. 아스텔은 편견의 원천으로 한편으로는 “권위와 교육, 관습”(Authority, Education and Custom)을,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자기애와 오만함”(Irregular Self-Love and Pride)을 든다.<sup>41</sup> 이와 같은 악덕을 제압하기 위해 인간은 철학적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3장은 지성과 정신의 개선에 필요한 훈련법을 상세히 설명한다(이 대목은 저자가 데카르트주의 정신훈련방법으로부터 받은

40 “a wise Woman to govern him,” Astell (2002), p. 106. 1674년경 메리 모어의 논고에서처럼, 유덕한 부인이 부덕한 남편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옹호론자라 해도 직접적으로 여성이 남편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Mary More (2016), *The Woman's Right*, in *Educating English Daughters: Late Seventeenth-Century Debates* (ed. by Frances Teague and Margaret J. M. Ezell), Toronto: Iter Academic Press, 128-143.

41 Astell (2002), p. 131.

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아스텔은 3장 4-5절에서 한층 더 본격적인 학문론을 전개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학문의 연마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4장은 신을 향한 사랑의 길에 합류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와 정념을 다스리는 과정을 제시하며, 결론부는 다시 여성 “학술원”(Academy)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 편의 길고 다소 비체계적인 에세이의 형식을 띤 『진지한 제안』과 달리, 속편은 여성을 위한 자기수양서의 체계를 갖춘 책이었다.

여성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범위를 재규정하려는 아스텔의 문제의식은 한층 분명해진다. 『두 번째 제안』은 고전문헌과 역사서를 강조하는 인문주의의 커리큘럼을 인간을 오도하는 불필요한 요인이라 공격한다: “많은 언어를 할 줄 아는 것, 모든 시대의 저자와 견해에 관한 역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 화려한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자신이 채택한 견해의 장단을 옹호하는 것 등은 신이 아니라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sup>42</sup> 아스텔은 전통적인 인문주의 교양교육을 불필요한 현학(pedantry)으로 비난하며, 여성은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현학이 아닌 이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도 신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여성이 고전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고려하면 아스텔의 인문주의 커리큘럼 비판은 여성들이 습득할 수 없는 지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대신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익힐 수 있는 도덕적인 지식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42 “To be able to speak many Languages, [t]o give an Historical Account of all Ages Opinions and Authors, to make a florid Harangue, or defend right or wrong the Argument I’ve undertaken, may give me higher thoughts of my Self but not of GOD,” Astell (2002), p. 143.

43 유사한 문제의식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당대의 여성옹호론 펄플릿으로는 다음을 참조: Judith Drake (1696), *An Essay in Defence of the Female Sex in which are inserted the Characters of a Pedant, a Squire, a Beau, a Virtuoso, a Poetaster, a City-critick, &c.*, London.

현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대화 능력 및 웅변 등 여성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술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이어진다.<sup>44</sup> 아스텔은 포르루아 알의 논리학 교재를 전거로 삼아 정교하고 화려하지만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위적인 논변의 기술을 비판한다. 논리학과 수사학은 난잡한 장식을 배제하고 “명확함”(Clearness)의 미덕을 갖춘 정확한 사유와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평이하고 소박한 글쓰기의 강조가 곧 모든 수사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여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설득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좋은 웅변가가 되는 방법은 선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sup>45</sup> 기독교인 여성은 대화를 온화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진지한 제안』이 철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수의 여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두 번째 제안』은 보다 넓은 범위의 기독교인 여성에게 말을 건네는 텍스트다. “선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꼭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진술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개혁적인 삶을 제시하려는 아스텔의 방향 전환을 보여 준다.<sup>46</sup>

이러한 전환은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을 염두에 두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두 번째 제안』의 결론부에서 아스텔은 독신 여성들이 모여 학문과 철학적 자기수양, 기독교적 선을 실천하며 “능동적인

44 아스텔의 대화 개념에 관해서는 William Kolbrener (2014), “Slander, Conversation and the Making of the Christian Public Sphere in Mary Astell’s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and *The Christian Religion as Profess’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Religion and Women in Britain, c. 1660-1760* (ed. by Sarah Apetrei and Hannah Smith), Farnham: Ashgate, pp. 131-143의 논의를 참고.

45 “the way to be good Orators is to be good Christians,” Astell (2002), p. 195.

46 “the only thing necessary is to be good Christians, and we may be that without being Philosophers,” Astell (2002), p. 201.

삶”(Active Life)을 살아가는 기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sup>47</sup> 남성들이 고전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집착할 동안 여성들은 “신의 책, 즉 자연과 성경에 관한 충실한 지식”만 얻을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언어로만 스스로를 표현해도 충분하다.<sup>48</sup> 고전문헌과 고전어에 대한 지식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후자의 연마만으로도 신실하고도 철학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관점은 여성 학술원의 교육 커리큘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sup>49</sup>

두 편의 『진지한 제안』에서 아스텔은 국교회 여성교회론의 논의를 활용하여 자신의 여성주의적 관심사를 전개했다. 남성의 유혹과 강압이 배제된 수녀원의 기획이나, 그곳에서 가정적인 일상을 위해 필요한 ‘여성적인’ 지식만이 아닌 고전어와 철학을 익히며 살아간다는 구상은 기독교 의무론에 내재한 에너지가 약간의 방향조정만으로도 상당히 다른 목표를 겨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독교인의 의무를 끝까지 추구할 때 여성은 가정의 테두리를 초월하거나, 심지어 가정 내에서 남녀의 위계를 뒤집는 것도 가능했다. 팸플릿에 가까웠던 전작보다 한층 더 체계화된 도덕철학서의 형식을 갖춘 『두 번째 제안』은 그 자체로 급진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성을 위해 바람직한 지식의 성격 자체를 재규정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다수의 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고전어 중심의 인문주의 커리큘럼은 배격되었으며, 아스텔은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지식, 즉 더욱 많은 여성이 큰 어려움 없이 익힐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이(남성)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국교회 여성교회론은 여성의 위상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를 요구했다. 아스텔은 이를 받아 한편으로

47 Astell (2002), p. 232.

48 “a competent Knowledge[sic.] of the Books of GOD, Nature I mean and the Holy Scriptures,” Astell (2002), p. 234.

49 이후 『결혼에 대한 성찰』 1706년 판 서언(preface)에서 아스텔은 성경해석을 위한 고전어 습득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Astell (1996), pp. 7-31.

는 여성이 추구할 수 있는 위상의 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기준을 다소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도덕적 위상을 증진하고자 했다.

#### 4. 아스텔의 『기독교론』: 관용론과 “숙녀의 종교” 논쟁

『기독교론』은 아스텔의 저술 중 가장 풍부하고 체계적이지 마찬가지로 가장 까다로운 저작이다. 『기독교론』의 1편 및 5편은 아스텔의 종교론을 다룬다. 이 대목은 무엇보다 아스텔이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을 직접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기독교론』을 다룬 비교적 소수의 평자는 아스텔의 공격을 주로 철학 및 신학적 논쟁의 관점에서 읽고자 했다.<sup>50</sup> 물론 로크의 철학적 물질론이나 그와 결부된 이신론(deism) 논쟁의 맥락이 당대 로크와 (아스텔을 포함한) 비판자들 사이의 충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해석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두 가지 쟁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로크가 『기독교의 합리성』에서 전개하는 논리는 일차적으로 당대 관용론자들이 시도한 다양한 수사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로크가 해당 저작에서 채택한 관용론적 전략에는 (로크의 의도했든 아니든) 아스텔의 여성주의적 논변을 취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잠재해 있었다. 아래는 먼저 이 두 가지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이어 아스텔이 『기독교론』에서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응답하고자 했는가를 짚어 본다.

관용론은 통상적으로 세속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 혹은 양심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며, 로크의 관용론 연구 또한 이런 관점에서 『제2통치론』(Second Treatise) 및 로크가 집필한 일련의 관용 서한에 초점을 맞추는 경

50 Perry (1986), pp. 90-97; Apetrei (2010), pp. 122-31; Astell (2013a), pp. 9-31.

향이 있다.<sup>51</sup> 하지만 존 마셜(John Marshall)의 방대한 연구가 보여 주듯 17세기 후반의 관용론자들은 강고한 불관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와 수사전략을 개발해야만 했다.<sup>52</sup> 『기독교의 합리성』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로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신약의 복음서,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그 외의 사항은 ‘비본질적인 것’(an indifferent thing)으로 간주하여 종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53</sup> 기독교의 본질을 최소주의적으로 규정하여 가능한 많은 종파를 단일한 기독교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그 전략의 골자였다(이러한 최소주의적 해법은 이미 그로티우스와 같은 이전 세대 에라스무스주의자들이 보여 준 바 있었다).<sup>54</sup> 로크의 최소주의적 해법은 사실상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기독교의 교리 중 극히 일부만을 취사선택하는 일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다양한 입장으로부터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려는 시

- 
- 51 여기서 로크의 관용론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래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Timothy Stanton (2006), "Locke and the Politics and Theology of Toleration," *Political Studies* 54,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pp. 84-102; Rainer Forst (2013), *Toleration in Conflict: Past and Present* (trans. by Ciaran Cron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 5; Teresa M. Bejan (2017), *Mere Civility: Disagreement and the Limits of Toleration*,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 4 등을 참조. John Locke (2010),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and Other Writings* (ed. by Mark Goldie), Indianapolis: Liberty Fund의 편집자 서문(pp. ix-xxiii)은 로크 관용론의 여러 측면을 일별하기에 편리하다. 한국 학계의 주요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박정규 (2013), 「존 로크의 관용론 재고: 1660-70년대 잉글랜드 종교 논쟁의 맥락에서」, 『영국 연구』 30, 영국사학회, pp. 1-32; 이재영(2014), 「로크의 종교 철학: 이성과 신앙의 조화」, 『기독교철학』 18, 한국기독교철학회, pp. 9-55.
- 52 John Marshall (2006), *John Locke, Toleration and Early Enlightenment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3 John Locke (1999),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ed. and intro. by John C. Higgins-Biddle), Oxford: Clarendon Press, p. 129.
- 54 Henk Nellen (2012), "Minimal Religion, Deism and Socinianism: On Grotius's Motives for Writing *De Veritate*," *Grotiana* 33, Brill, pp. 25-57.

도로 받아들여졌다. 『기독교의 합리성』 출간 이후, 부분적으로는 존 톨랜드(John Toland)의 『신비하지 않은 기독교』(Christianity Not Mysterious, 1696) 등이 신론자들의 저작이 뒤따라 출간되는 상황과 맞물려, 로크는 자신을 이신론자 혹은 소치니파로 규탄하는 팸플릿들에 맞서 남은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재반론에 할애해야 했다.<sup>55</sup>

『기독교의 합리성』은 아마도 저자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을 또 다른 충돌지점을 낳았다. 로크는 기독교의 정수로부터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 지식을 배격하면서, 신앙의 핵심은 “하루하루 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이들과 장사치들, 노처녀들과 소젖 짜는 처녀들”(the Day-Labourers and Tradesmen, the Spinsters and Dairy Maids)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한다고 강변했다.<sup>56</sup> 문제는 아스텔의 관점에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스텔의 ‘여성주의’의 핵심은 여성에게 기독교인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교육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이때 여성에게 부여된 의무가, 또 여성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발휘하는 지적·도덕적 역량이 커질수록 여성의 도덕적 지위 또한 상승한다. 여성에게 가정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을 넘어 기독교인이자 철학자로서 수양하기를 요구할 때, 아스텔은 곧 여성에게 남성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드높은 삶의 가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로크의 논리는 아스텔의 여성주의적 전략을 토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토록 소박하고 단순하다면, 따라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지성의 수준 역시 범상하다면, 여성 기독교인들이 학식을 쌓고 철학적 수양을 할 이유 역시 사라져 버린다. 애초에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기본적인 전제로 주어진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의 훈련(spiritual exercise)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때로는 그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해

55 Locke (1999), pp. xv-cxv 참조.

56 Locke (1999), p. 157.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는 그러한 수양의 근거가 사라질 때 여성의 상승을 위한 핵심적인 토대 역시 사라지게 됨을 뜻한다. 이것이 아스텔이 『기독교의 합리성』을, 그리고 비슷한 요지를 주장한 『숙녀의 종교』를 직접 거론하면서 반박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sup>57</sup>

『기독교론』 1편 1절에서 아스텔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마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위한 “숙녀의 종교”(a lady's religion)가 따로 존재하는 양 이야기하는 저자들과 달리, 아스텔은 지위의 고하와 배움의 유무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인인 한 오직 하나의 종교를 가질 뿐”이라 주장한다(신사와 숙녀가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전제한 권위 있는 저자로 얼스트리가 소환된다).<sup>58</sup> 이어 아스텔은 여성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올바른 종교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교리 및 그와 결부된 권위의 참과 거짓을 검토해야 하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는 논변으로 나아간다(3-6절).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에 관해 논하는 1절의 남은 대목에서 아스텔은 인간이 신의 뜻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당대 신학적 논변의 구조를 따라간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접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인간 본성에 주어진 이성의 능력,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을 넘어선 신의 계시, 그리고 이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성경이다(14-20절). 물론 인간이 계시의 증거를 접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보장은 없다. 신의 뜻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 기초해 적절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스텔은 인간 이성에 한계를 부여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계시와 성경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다른 이의 안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44절), 특히 “남성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여성들이 노예

57 Anon. (1697), *A Lady's Religion. In A Letter to the Honourable My Lady Howard. By a 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58 “they have all of them but one religion if they are Christians,” Astell (2013a), p. 47.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47절).<sup>59</sup>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특히 이 책이 예상 독자로 삼고 있는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독교론』의 2편에서 4편까지의 내용은 의무론의 서술형식을 통해 여기에 답하고자 한다. 각각 신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서술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대목은 자연법적 의무론의 구조를 빌려 여성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 및 수양의 원칙을 제시한다. 『기독교인 여성의 교육에 관하여』 및 『숙녀의 소명』 등 대체로 여성을 혼인 상태에 따라 미혼(딸)·기혼(부인)·과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무를 제시하는 기존의 여성지침서와 달리, 『기독교론』은 대체로 남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인간 의무론』과 같은 저작과 마찬가지로 삼분법적 의무론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책의 핵심주장이 남성을 위한 종교와 여성을 위한 종교 사이의 차등을 비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술구조는 마찬가지로 여성의 의무와 남성의 의무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는 의식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이 중 4편에서 아스텔은 여성의 지적 수양이라는 익숙한 주제로 돌아온다. 이성애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여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은 학문의 연마를 통해 자신의 지성(understanding)을 증진해야 한다(259절). 여기에는 해로운 읽을거리를 멀리하는 노력 또한 포함되는데, 흥미롭게도 아스텔은 “시, 희곡, 로맨스”(poetry, plays, and romances)처럼 흔하게 비판받는 장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교육서에서 추천하는 “역사서”(history)까지도 공격한다(260절). “그들[남성 역사가]은 좀처럼 여성의 위대하고 선한 업적을 기록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sup>60</sup> 대신 여성에게는 감각과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이성애 합치하도록 하는 “사색”(speculation)과, 성스러운 진리에 다가서기 위한 “관

59 “overruled by the men,” Astell (2013a), p. 71.

60 “they seldom condescend to record the great and good actions of women,” Astell (2013a), p. 202.

조”(contemplation), 그리고 명상과 같은 철학적 수행이 필요하다(261-64절). 가계 관리 정도를 제외하면 “능동적인”(active) 삶이 허락되지 않은 여성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유의미한 선택지는 세속으로부터 멀어져 철학과 학문을 연마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문과 “기독교는 남성만이 아닌 우리[여성들]의 일”이라 아스텔은 강변한다.<sup>61</sup> 여성이 “남성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여” 올바른 지식을 추구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이 가능해진다.<sup>62</sup>

아스텔의 ‘여성주의’는 기독교가 여성을 위한 지적·도덕적 수양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로크 및 『숙녀의 종교』의 저자가 주장한 바와 같은 관용론은 여성-기독교-지식의 결합을 해체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고결한 도덕적 주체가, 따라서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박탈해 버릴 위험이 있었다. 『기독교론』에서 아스텔은 한편으로 이들의 논지를 다각도로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적 여성 의무론의 체계를 더욱더 충실하고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신학적 논쟁에서 도덕지침서적 글쓰기로, 다시 신학적 논변으로 돌아오는 이 책의 독특한 구조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하고자 했던 아스텔의 의도를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논쟁 펄플릿과 도덕지침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융합하려는 시도가 각각의 과제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1700년대 잉글랜드 초기 여성주의 저작 중 가장 다층적이고 복잡한 텍스트를 낳았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61 “Christianity at least is as much our business as men’s,” Astell (2013a), p. 205.

62 “To depend on God, and not on man,” Astell (2013a), p. 206.

## 5. 결론

본 논문은 메리 아스텔의 초기 여성주의적 논변이 왕정복고 이후 국교회의 풍속개혁 운동이라는 맥락 내에서 섬세하게, 또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읽힐 수 있으며, 다시 또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아스텔의 로크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겨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이로부터 몇 가지 간략한 성찰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스텔의 초기 여성주의를 지성사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성주의’가 시공간에 따라 상이한 전제와 논리에 입각하는 역사적인 사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아스텔이 활동했던 시기를 비롯해 근대 초 잉글랜드는 오늘날과 다른 도덕적 전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다. 이는 여성의 옹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실이었다. 애초에 권리 언어가 제한적으로만 통용되는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관념은 그 자체로 자명하지 않았다. 아스텔과 같은 초기 여성주의자들은 권리가 아닌 의무와 미덕과 같은 개념에 의지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변을 구축해야만 했다. 아스텔의 저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여성을 옹호하고 남성을 비난하는 몇몇 문구를 뽑아내는 식의 선택적 독서를 넘어 그의 사상이 정확히 무엇이었으며 또 그것이 어떠한 전략적 함의를 지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의 복잡한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잉글랜드 초기 여성주의와 기독교 언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숙고하도록 이끈다. 근대 초 잉글랜드에서 기독교는 단지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 급격한 사회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동력원이기도 했다. 여성의 교화·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은 그러한 동력원의 산물 중 하나였다. 당대의 초기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기독교적 언어를 토대로 여성의 지위 상승

을 요구하고 남성의 지배와 위협을 비판하는 일련의 여성주의적 주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때 기독교적 언어는 단순한 배경만은 아니었다. 스스로를 “잉글랜드교회의 딸”이라 불렀던 아스텔이 로크의 관용론을 향해 드러낸 적대감은 역으로 초기 여성주의의 논변이 지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대 교회정치·신학논쟁의 여러 쟁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보여 준다. 아스텔의 여성주의적 주장이 정치적이려면, 이때의 ‘정치’란 종교와 도덕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초기 여성주의의 정치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도덕 언어와 종교적 논쟁의 중요성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의 실천적 의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음하자. 기독교 의무론에 입각한 아스텔의 초기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익에 관해 분명 제한적인 주장만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여성(주의)이 별다른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곧 과거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확히 과거 담론의 어떤 구조가 특정한 주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저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과 매우 다른 우리 자신의 언어에 작용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거리를 두고 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 자신의 언어에도 맹목적인 지점은 존재한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굴절의 지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아스텔의 독해와 같은 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와 전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떠한 주장을 불/가능하게 하는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때로는 과거인의 눈으로 오늘을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어 가는 데도 예외는 아니다.

## 참고문헌

### 자료

- Allestree, Richard (1700), *The Ladies Calling in Two Parts*, Oxford.
- Anon. (1697), *A Lady's Religion. In A Letter to the Honourable My Lady Howard. By a 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 Astell, Mary (2013a), *The Christian Religion, as Professe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ed. Jacqueline Broad), Toronto: Center for Reformation and Renaissance Studies.
- Astell, Mary (2013b), "Preface, by a Lady" in Lady Mary Wortley Montagu, *The Turkish Embassy Letters* (ed. by Teresa Heffernan and Daniel O'Quinn), London: Broadview, pp. 221-223.
- Astell, Mary (2002),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ed. by Patricia Springborg),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 Astell, Mary (1996), *Astell: Political Writings* (ed. by Patricia Springbo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tell, Mary (1709), *Bar'telemy Fair: Or, an Enquiry after Wit; in Which due Respect is Bad to a Letter Concerning Enthusiasm, to My Lord \*\*\**, London.
- Astell, Mary, and John Norris (2005), *Letters Concerning the Love of God* (ed. by E. Derek Taylor and Melvyn New), Aldershot: Ashgate.
- Ballard, George (1985), *Memoirs of Several Ladies of Great Britain, Who Have Been Celebrated for Their Writings or Skill in the Learned Languages, Arts and Sciences*,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Chudleigh, Mary (1993), *The Poems and Prose of Mary, Lady Chudleigh* (ed. by Margaret J. M. Ez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rake, Judith (1696), *An Essay in Defence of the Female Sex in which are inserted the Characters of a Pedant, a Squire, a Beau, a Vertuoso, a Poetaster, a City-critick, &c.*, London.
- Locke, John (2010),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and Other Writings* (ed. by Mark Goldie), Indianapolis: Liberty Fund.
- Locke, John (1999),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ed. and intro. by John C. Higgins-Biddle), Oxford: Clarendon Press.
- Makin, Bathsua (1673), *An Essay to Revive the Antient Education of Gentlewomen, in Religion, Manners, Arts & Tongues. With An Answer to the Objections against this Way of Education*, London.
- More, Mary (2016), *The Woman's Right*, in *Educating English Daughters: Late Seventeenth-Century Debates* (ed. by Frances Teague and Margaret J. M. Ezell), Toronto: Iter

Academic Press, 128-143.

Vives, Juan Luis (2000), *The Education of A Christian Woman: A Sixteenth-Century Manual* (ed. and trans. by Charles Fantazz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ives, Juan Luis (1585), *A Very Fruitfull and Pleasant Booke, called the Instruction of a Christian Woman*, trans. by Richard Hyrde, London.

## 논저

박정규(2013), 「존 로크의 관용론 재고: 1660-70년대 잉글랜드 종교 논쟁의 맥락에서」, 『영국연구』 30, 영국사학회, pp. 1-32.

배혜정(2015), 「결혼에 대한 메리 아스텔(1666-1731)의 비판적 고찰」,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pp. 431-468.

배혜정(2008), 「여성교육을 위한 메리 아스텔(1666-1731)의 제안」,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pp. 265-294.

왓모어, 리처드(2020), 이우창 역, 『지성사란 무엇인가?: 역사가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 파주: 오월의 봄.

이우창(2022), 「새뮤얼 리처드슨과 초기 여성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창(2022) 「영어권 계몽주의 연구의 역사와 “잉글랜드 계몽주의”의 발견」, 『코기토』 9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 227-260.

이재영(2014), 「로크의 종교 철학: 이성과 신앙의 조화」, 『기독교철학』 18, 한국기독교철학회, pp. 9-55.

Apetrei, Sarah (2011), “‘The Life of Angels’: Celibacy and Asceticism in Anglicanism, 1660-c.1700,”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3.2, Routledge, pp. 247-274.

Apetrei, Sarah (2010), *Women, Feminism and Religion in Early Enlightenment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jan, Teresa M. (2017), *Mere Civility: Disagreement and the Limits of Tolerance*,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ad, Jacqueline (2014), “Mary Astell on Marriage and Lockean Slave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35.4, Imprint Academic Ltd., pp. 718-738.

Broad, Jacqueline (2015), *The Philosophy of Mary Astell: An Early Modern Theory of Virt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oi, Ju Lie (2014), 「Mary Astell’s *The Christian Religion: Life, Liberty and Happiness as Professe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영미문학페미니즘』 22.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pp. 5-41.

Choi, Ju Lie (2011), 「Women, Religion, and Enlightenment: Mary Astell’s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영미문학페미니즘』 19.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pp. 5-34.

Choi, Ju Lie (2010), 「Born Free? Mary Astell’s *Reflections upon Marriage* and Defoe’s *Roxana*」, 『근대 영미소설』 17.2, 근대 영미소설 학회, pp. 5-32.

- Claydon, Tony (1996), *William III and the Godl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Natalie Zemon (1976), "'Women's History' in Transition: The European Case," *Feminist Studies* 3.3/4, Feminist Studies, Inc., pp. 83-103.
- Duffy, Eamon (1998), "The Long Reformation: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the Multitude," *England's Long Reformation 1500-1800* (ed. by Nicholas Tyacke), London: UCL Press, pp. 33-70.
- Ezell, Margaret J. M. (2017), *The Oxford English Literary History Vol. 5: 1645-1714, The Later Seven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rst, Rainer (2013), *Toleration in Conflict: Past and Present* (trans. by Ciaran Cron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ie, Mark (2007), "Mary Astell and John Locke,"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ed. by William Kolbrener and Michal Michelson), Ashgate, pp. 65-85.
- Gregory, Jeremy, ed. (2017), *The Oxford History of Anglicanism, Volume II: Establishment and Empire, 1662-182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undy, Isobel (1999), *Lady Mary Wortley Montagu*,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 Bridget (1987), "A Refuge from Men: The Idea of a Protestant Nunnery," *Past and Present* 117,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7-130.
- Kelly, Joan (1984), *Women, History and Theory: The Essays of Joan Kel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ein, John William (2019), "Susanna Hopton and Mary Astell: Two Women Spiritual Writers Among the English Nonjurors," *Anglican and Episcopal History* 88.2, Historical Society of the Episcopal Church, pp. 156-175.
- Kolbrener, William (2014), "Slander, Conversation and the Making of the Christian Public Sphere in Mary Astell's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and *The Christian Religion as Profess'd by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Religion and Women in Britain, c. 1660-1760* (ed. by Sarah Apetrei and Hannah Smith), Farnham: Ashgate, pp. 131-143.
- Kolbrener, William, and Michal Michelson, eds. (2007),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Aldershot: Ashgate.
-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Marshall, John (2006), *John Locke, Toleration and Early Enlightenment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llen, Henk (2012), "Minimal Religion, Deism and Socinianism: On Grotius's Motives for Writing *De Veritate*," *Grotiana* 33, Brill, pp. 25-57.
- Pal, Carol (2012), *Republic of Women: Rethinking the Republic of Letters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e (1989),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rry, Ruth (1990), "Mary Astell and the Feminist Critique of Possessive Individualism," *Eighteenth-Century Studies* 23.4,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444-457.
- Perry, Ruth (1986), *The Celebrated Mary Astell: An Early English Femin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Quantin, Jean-Louis (2009), *The Church of England and Christian Antiquity: The Construction of a Confessional Identity in the 17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Sarah Gwyneth (2009), *The Birth of Feminism: Woman as Intellect in Renaissance Italy and Engl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Joan (1988),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Florence M. (1916), *Mary Astel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Hannah (2007), "Mary Astell, *A Serious Proposal to the Ladies* (1694), and the Anglican Reformation of Manners in Late-Seventeenth-Century England," *Mary Astell: Reason, Gender, Faith* (ed. by William Kolbrener and Michal Michelson), Ashgate, pp. 31-47.
- Smith, Hilda L. (1982), *Reason's Disciples: Seventeenth-Century English Feminist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owaal, Alice, and Penny A. Weiss, eds. (2016), *Feminist Interpretations of Mary Astell*,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pringborg, Patricia (2005), *Mary Astell: Theorist of Freedom from Dom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ringborg, Patricia (1995), "Mary Astell (1666-1731), Critic of Lock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 621-633.
- Spurr, John (1993), "The Church, the Societies and the Moral Revolution of 1688," *The Church of England, c.1689-c.1833: From Toleration to Tractarianism* (ed. by John Walsh, Colin Haydon, and Stephen Tayl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7-142.
- Spurr, John (1991), *The Restoration Church of England, 1646-168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anton, Timothy (2006), "Locke and the Politics and Theology of Toleration," *Political Studies* 54,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pp. 84-102.

## ABSTRACT

## Mary Astell's Early Feminism

Lee, Woochang\*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This article's aim is to interpret Mary Astell's major works within the context of the Anglican “reformation of manners” movement an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her “early feminist” tactics. After presenting the historiography of the Astell studies in the first section, the second section briefly reviews the rationale for female reform in the Anglican “Restoration Church” and examines how the subject of women's knowledge and education came to be prominent. Section 3 examines her strategy for building a feminist argument from the Anglican reform of female manners in *Serious Proposal* (1694) and *Second Proposal* (1697), particularly her tactical use of the subject of women's knowledge. The fourth section discusses Astell's feminist politics of knowledge for women in *The Christian Religion* (1705),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her feminism and the post-revolutionary toleration works of the 1690s, particularly John Locke's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1695). In the final section, the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Astell and early feminism is revisited.

**Keywords** Mary Astell, Woman Philosopher, Early Feminism, Anglicanism, John Locke, Toleration

---

\*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